

기고

119구급차, 꼭 필요한 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 119.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오·남용으로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우리 진도소방서에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자제해야
단순 감기, 만성질환 관리, 정기 병원 이송 등 생명이 지장이 없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구급차가 중증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지므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응급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하는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최근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병원 선정에 대한 구급대원의 판단에 대한 의의제기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이송과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합니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비응급 시에는 119 상황실에서 상담 가능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119상황실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약국안내·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도소방서 소방서장 김재출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박지원과 박제가(2)

뒤를 잘 봐주었다.

박제가는 이덕무와 유득공 등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서자 출신 지식인들과 교류를 나눴다. 이 가운데 이덕무는 서장관 자격으로 중국에 들어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자세히 기록해 왔으며, 고종학에 관한 책들도 많이 가져왔다. 그가 죽자 정조는 장례비와 유고집 간행 비용을 대주고, 그의 아들을 검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살아생전 이덕무가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을유년 겨울 11월에 서제가 추위 들

아래 있는 조그마한 모옥(茅屋, 초가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집이 매우 누추하여 벽에 언 얼음이 뽀얗고, 구들 틈으로 새어나오는 연기가 매캐하여 눈을 아프게 했다. 아랫목이 불쑥하여 그릇을 놓으면 물이 반드시 얼질러지고, 해가 비치면 쌓였던 눈이 녹아 썩은 락에서 누르스름한 장국 같은 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한 방울이라도 손님의 도포에 떨어지면 손님이 깜짝 놀라 일어나므로, 내가 사과하면서라도 게을러서 집을 수리하지 못했다. 눈이 올 적마다 이웃에 사는 작달막한 늙은이가 새벽이면 대비를 들고

문을 두들기며, ‘딱한 일이며! 연약한 서제가 추위에 얼지 않았는지’ 하면서, 먼저 길을 내주었다.”

다음으로 유득공(1748년~1807년). 그가 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유춘이 전염병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유득공은 돈의문(서대문) 앞 경행방(현재 종로2·3가, 낙원동 등)에서 서당에 다니고, 모친 홍씨는 고관들의 샅바느질을 했다. 홍씨는 아들을 서당에 보내면서도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혔다. 하루는 유득공이 어떤 구절을 발견하고 기뻐서 벌떡 일어나다가 옆에 있는 기름통을 쏟고 말았다. 순식간에 기름이 책과 샅바느질을 하던 비단을 적시고 말았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린 이들에게 모친이 자애롭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비단 값을 주면 그만이다.”

홍씨는 이튿날 비단 주인을 찾아가서 두 배로 변상을 하겠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자초지종을 들은 고관은 홍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배터리는 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전 중 발열, 외부 충격, 불량 제품 사용은 배터리 폭발 및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충·방전 과정에서 열

이 발생하며, 일정 온도를 넘어설 경우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배터리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비정품 충전기 사용, 차량 내 장시간 방치, 충전 중 외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명확하다. ▲정품 충전기 사용 ▲배터리 과열 시 즉시 충전 중단 ▲낙하·압력에 의한 손상 주의 ▲고온 환경에서 보관 금지 ▲취침·외출 시 충전 지양 ▲폐기 시 지정된 수거함 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재는 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리

튬이온배터리 역시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면 안전한 도구이지만, 방심하면 위험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은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음력 11월 3일)

48년생 전진과 후진 시기(와)때를 알아보자. 60년생 콧노래 흥얼흥얼만 사기 편해진다. 72년생 생활도 행편도 인경권에 접어들다. 84년생 늦어 있는 공부 열심히 따라가자. 96년생 애쁘다 하는 행동 경수로 매겨진다.

49년생 큰소리 호언장담 꼬리만 남겨진다. 61년생 보랏빛고 줄기운 땀 흘려보자. 73년생 좁아 있던 입지 크고 화려해진다. 85년생 부끄러운 실패 게임이 원인이자. 97년생 간질함을 데해 하려를 받아낸다.

50년생 바빌 마녀나 면 귀들이어보자. 62년생 울적 눈물이나는 감동에 빠져보자. 74년생 인기음변으로 손길로 넘어가자. 86년생 맑고 향기로운 기르침을 받아보자. 98년생 속에는 불민을 밖으로 꺼내보자.

51년생 등업자 제안 두 팔 벌려 안아주자. 63년생 겨울꽃 피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 75년생 답답하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보자. 87년생 멀리 있는 목표 반환점 돌아보자. 99년생 매가 두려워도 솔직함이 우선이다.

52년생 순위에서 밀려난 조연이 되어보자. 64년생 버거운 상대 피하는 게 상책이다. 76년생 고인은 끝내고 실천으로 기보하자. 88년생 끈기와 안 내이어달리기해야 한다. 100년생 작지만 의미있는 역할이 맡겨진다.

53년생 밀려없는 장사로 지갑을 배틀러자. 65년생 기장이라는 책임 무게 거야한다. 77년생 그림같은 평화신선을 해보자. 89년생 한결같은 모습의 리듬 지켜내자. 101년생 아쉬움은 남지만 기회를 다시 하자.

54년생 지지 못하는 미안함, 애써 외면하자. 66년생 반대로 성화도 모른 척차. 78년생 생각주머니에서 자해를 꺼내보자. 90년생 이름다 운 유혹에 흠뻑 취해보자. 102년생 동지 북세상으로 날개를 펼쳐내자.

55년생 떠돌았던 전의 승부에서 이겨내자. 67년생 입씨름을 해도 손발을 맞춰주자. 79년생 품앗이 수고도 열심히 해야 한다. 91년생 행복하고 싶은 만남을 가져보자. 103년생 이만큼 결한다. 무용담이 펼쳐진다.

56년생 책에 있는 내용 급할수록 돌아가자. 68년생 새로운 희망이 가슴을 두드린다. 80년생 마냥 웃을 수 없는 축하를 받아보자. 92년생 그럴만한 이유차선으로 돌아보자. 104년생 혼자면의 욕심 잘못임을 알아내자.

57년생 너무나 좋은 결과 믿어가지 않는다. 69년생 선물의 크기보다 정성을 담아보자. 81년생 최고이자 자부심 비싸게 굴어보자. 93년생 현실이 어려움에 갈 길을 막아낸다. 105년생 오지않을 소식 기다림을 포기하자.

58년생 의도 있는 접근 실체를 알아보자. 70년생 절정의 이른 감성 애정 표현해보자. 82년생 공들인 노력에 대가를 받아내자. 94년생 슬픔도 역경도 바람에 흩날린다. 106년생 신나고 들뜨지는 제인을 들어보자.

47년생 혼자면은 외로움과 맞서 싸워보자. 59년생 경망이 아닌 빠른 게 고쳐내자. 71년생 하리 속이상은 겸손기치를 대해준다. 83년생 이차하는 방식주의 지못한다. 95년생 박수받아 미땀한 속씨를 펼쳐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